

환경부 인사동정(9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연구사 채민희
△환경연구사 방규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연구사 박순철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연구사 최종우

▲경인지방환경청

△환경연구사 이동원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연구사 강미아

▲전주지방환경청

△환경연구사 엄익춘 국립환경
연구원 근무를 명함.

▲환경연구사 채용후보자

이은영 김말희 노환춘 김태규
김병익 김문수 강필구 송상환
이재원 이혜진 환경연구사시보
에 임함 국립환경연구원 근무
를 명함.

▲공업연구사 채용후보자

황진우 공업연구사시보에 임함
국립환경연구원 근무를 명함.

▲경인지방환경청

△환경연구사 김성미
△환경연구사 이정섭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노혜란 한강유역
환경청 근무를 명함.

▲환경연구사 채용후보자

이형섭 환경연구사시보에 임함

낙동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연구사
조광석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박중희 금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송기봉 영산강유역환경청 근무
를 명함.

▲환경연구사 채용후보자
김지영 환경연구사시보에 임함
원주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임태호 대구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환경연구사 채용후보자
강영렬 환경연구사시보에 임함
전주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환경표지제도 상호인정협정
(MRA) 체결**

환경마크협회는 지난 9월 13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환경부와 일
본·중국·대만·태국 등 해외 환
경표지 운영기관 대표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아시아국가 환경라벨링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아시아국가의 환경표지 상
호인정협정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대만·태국·중국 등
5개국이 참가하고 우리나라는 이
번에 대만·태국과 협정을 체결하

며, 일본과 중국도 이른 시일 내
에 협정에 참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상의, 기후변화협약구축회
대표단 파견**

기후변화협약 국제동향에 적극대
처키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
성)는 이달 23일부터 인도 뉴델리
에서 186개 협약대상국과 국제기
구, 산업계 대표 등이 참가한 가
운데 열릴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기상이변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
황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범지구
적 차원에서 다루게 될 이번 회의
에서는 제7차 총회(2001. 11. 모로
코)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후 교토의정서
비준국간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되
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은실가스 의무감축 참여가 점차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개청

낙동강수계의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개청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11
일 오전 청사 4층 강당에서 김명

자 환경부장관과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 기관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와환경청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낙동강수계 물관리와 관련한 환경행정업무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14일 제정 공포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단위 체제였던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조직을 유역관리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방청 명칭도 변경됐다.

이에 따라 유역환경청은 기존 1국 5과 2출장소 1감시대 체제에서 2국 8과 2출장소 1감시대로 조직이 확대돼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및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등 각종 오염원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신설된 유역관리국에서는 낙동강유역 전체에 대한 수질관리업무와 함께 지난 4월 15일 발족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주변 토지 매입,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대구에 있던 낙동강환경감시대를 유역환경청내 정규조직으로 개편, 체계적인 오염감시에 나선다.

아·태 폐기물매립 심포지엄

한국폐기물학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최로 '제2차 아시아·태평양 폐기물매립 국제심포지엄 (APLAS Seoul 2002)'이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국립환경연구원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 기간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국제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기술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코엑스 환경개선부담금 1위

서울 시내 건물 가운데 한국종합전시장(COEX)이 올해 상반기에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OEX는 서울시가 부과하는 올해 2/4분기 환경부담금 고액납부자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오염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분으로 지난 하반기에 비해 25억원 증가한 총 81만 3498건의 시설물과 자동차에 817

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월 9일 밝혔다.

특히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유통·소비과정에서 물과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코엑스가 2억 3320만여원으로 지난 2001년 3월부터 계속해서 최다 부과시설물로 선정됐다.

새한, 환경친화기업 지정

새한은 구미공장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지난 8월 17일 지정서 수여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이 참석, 환경친화기업 지정서를 전달했다.

환경친화기업이란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 및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장으로서, 환경친화기업 지정은 3년간 유지된다.

새한 구미공장의 환경친화기업 지정기간은 올 7월 26일부터 오는 2005년 7월 25일까지 3년간이며, 매년 환경개선계획 이행평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정유지 여부를 평가받는다.

